

SK네트웍스, 중국과 연료유 합작

둥관지역에 산업연료유 2차가공 150만톤 ... 지분 30-40% 참여

SK네트웍스가 한국기업 최초로 중국 광둥성에 산업용 연료유(Fuel Oil) 2차 가공공장을 건설한다.

SK네트웍스 관계자는 3월7일 “중국 선전과 광저우 사이에 있는 둥관(東莞)지역 5만-6만평 부지에 생산능력 150만톤의 산업연료유 2차 가공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둥관공장은 원유를 분해한 후 남는 중질유를 가공해 경질유를 뽑아내는 시설로 저장탱크가 2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둥관공장에서 생산되는 연료유는 광둥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공장에 발전시설 용도로 공급할 예정이다.

현재 중국 파트너와 지분 참여비율을 최종 조정중이며 SK네트웍스는 지분 30-40%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. SK네트웍스는 2004년 3/4분기부터 사업타당성 조사를 벌여 최근 투자방침을 확정했다.

투자규모는 3000만달러 안팎으로 2005년 말 또는 2006년 가동 예정이다.

SK네트웍스는 스피드메이트를 첼빙으로 중국 구석구석에 OK마트 등 주유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SK주유소의 중국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, 주유소 진출을 위해 중국 파트너를 통해 다각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SK네트웍스는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석유, 천연가스 등 SK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분야보다는 일반광 등 순수자원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5/03/09>